

“국방예산, 임기내 GDP 2.9%로 상향”

文대통령, 軍 지휘부 격려 오찬 “경제는 잘 사는 문제, 국방은 생존 문제… 압도적 국방력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가 안보를 위해 매진해 온 군 주요 지휘부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가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주요 지휘부 인사간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송 장관을 비롯해 한민구 전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임호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초청했다.

이날 자리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 속에도 굳건한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군 지휘부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에 국방과 안보를 잘 관리해 감사하다”며 “한민구 장관은 정치적 어려움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하도록 애써줬다”고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이 역시 압도적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인 현재 국방예산을 임기 내 2.9%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방력 증강을 위해 가장 절실한 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를 유지하는 기둥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과 경제”라면서 “경제는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문제지만 국방은 국가의 존립과 생존이 달린 문제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인 지금은 국방과 안보가 더욱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지휘관이 바뀐다고 해서 결코 틀이 생겨



본회의 정회에 자리 떠나는 여야 의원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여야 의원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있다.

서는 안된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처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튼튼한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순진 합참의장은 “지난 42년간 평생을 긴장 상태에서 살아왔다. 마흔 다섯 번의 이사를 해야 했기에

제대로 된 살림살이 하나 없을 뿐더러 동생들 결혼식에도 한번도 참석 못했다”며 “이것이 분단 상태인 조국을 지키는 대한민국 군인의 숙명인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장은 “그동안 모두 9명의 대통령을 국군통수권자로 모셔왔는데, 전역을 앞둔

군인을 이렇게 초청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주고 격려를 해준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감동스럽고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찬에서는 조만간 예정된 대규모 군 장성인사를 앞두고 주요 인사 대상자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국회,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결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허유·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박정화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찬성 198표, 반대 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찬성 183표, 반대 73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4~5일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 도덕성, 사법제도와 사법정책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했다. 이후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의견’으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허유 방통위원 추천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찬성 183표, 반대 73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표철수 방통위원 추천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찬성 163표, 반대 90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허유 위원은 민주당, 표철수 위원은 국민의당 몫이다.

국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도 총 투표수 218표, 찬성 216표, 기권 2표로 채택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가 완료되는 대로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연장의 건은 상정이 보류됐다. /뉴스

법사위,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채택한 청문보고서에 박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했다.

법사위 일부 위원은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법무부 탈 검찰화로 법무부의 다양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신념을 밝혔다”며 “검찰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고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야당 의원은 증여세 탈루 의혹, 동덕여대 이사장 재직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도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라리 압류됐던 사례가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보고서에 담겼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송부했다. /뉴스

민주당 “‘비밀유출’ 비판 ‘정윤희 문건’ 식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 대해 ‘비밀 유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정윤희 문건’처럼 본말을 전도하는 불순한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정윤희 문건 과동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건 유출은 국가문란’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사건의 핵심인 문건의 내용을 대통령기록법 위반으로 본말을 전도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안중범 전 수석의 수첩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자필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 수색을 거부했고,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문서파쇄기를 대규모로 구입한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백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국정농단 관련자의 구속 시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국가문란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

민주당 도당, 김상곤 장관과 서남대 정상화 논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지난 17일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긴급면담을 갖고 서남대 정상화를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춘진 도당 위원장과 박희승 지역위원장(남원읍임실순창), 이환주 남원시장, 강용구 도의원, 양오봉 도당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당의 이번 긴급방문은 서남대 폐교를 우려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서남대 재정부여자로 거론되고 있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김춘진 “서남대는 학교 문제·정치적 문제로 꼬여 있어”

김상곤 “쉽지 않은 상황, 정상화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

김춘진 도당 위원장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 지지율이 1위였는데 돌아온게 이런거냐는 지역민 반발 등 민심이 좋지 않다.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전북 소외는 이번 사태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서남대는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꼬여 있는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예컨대 지역내에서는 전남 지역 이정현 의원이 있는 순천에

의대를 옮기려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잘못하면 지역간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서남대 문제 해결이 쉽지 않지만 서울시립대, 삼육대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희승 지역위원장은 “서남대 의대 설립은 서남권에 대한 도농 균형발전 차원이

다. 그리고 지금의 서남대 사태는 관리 감독에 소홀한 교육부의 책임도 있다. 서남대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부실대학에 대한 문제점을 미세하게 따지자면 해결책은 없다. 교육부가 서남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만 있으면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다. 지역을 위해서라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상화를 위한 뾰족한 방안이 아직까지는 없다.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 같다. 그러나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김상곤 사회부총리에게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안도 전달했다. /김진성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 백두대간 역사관
- 3D 애니메트로닉스관
- 어드벤처 라이더관
-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범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